

대인 간 외상 경험자의 외상 경험 개방 후 사회적 반응과 반추가 외상 후 성장(PTG)과 외상 후 저하(PTD)에 미치는 영향*

유 미 연 김 민 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졸업생 교수

본 연구는 대인 간 외상 경험이 있는 성인이 외상 경험 개방 후 사회적 반응과 반추가 외상 후 성장(PTG)과 외상 후 저하(PTD)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인 간 외상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3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각 범인 간의 상관관계와 사회적 반응과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저하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었고,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침습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었고,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인 간 외상 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입전략에서 사회적 반응과 반추의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학계적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대인, 가, 외상, 사회적, 반응, 반추,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저하

* 본 연구는 유미연(2023)의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인 간 외상 경험자의 외상 경험 개방 후 사회적 반응과 반추가 외상 후 성장(PTG)과 외상 후 저하(PTD)에 미치는 영향'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서울 서초구 흐령로 366 (06722)

Tel : 02-684-6851, E-mail : pseudo@kcg.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이 세상에 고통이나 위기가 없는 삶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일생 동안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폭력적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등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에 노출되거나 사건을 경험한다(Ozer et al., 2003). 외상이란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로, 개인의 부적응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격적인 사건으로 정의된다(Tedeschi & Calhoun, 2004). 사람은 외상으로 인해 강렬한 두려움과 무력감, 공포를 경험하기도 하는데(Herman, 1992, 2015),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차 완화되지만 일부는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 사건과 관련된 감정과 기억이 의식에 침투하여 외상 사건이 재경험되거나 그와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고,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이동훈 등, 2017). 이처럼 외상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뿐만 아니라 자살, 우울, 불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윤명숙, 김서현, 2012; Afifi et al., 2008; Borges et al., 2008; Romito & Grassi, 200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Text Revision (DSM-5-TR; First, 2024)에 따르면, 외상 사건의 범위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성폭력에의 노출 등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외상 사건을 개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 가족, 친척 또는 가까운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된 것까지 포함한다. 한편 외상은 대인관계 관여도에 따라 대인 간 외상(interpersonal trauma)과 비대인 간 외상(impersonal trauma)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Allen, 2005), 이중 대인 간 외상은 사람에 의

해 고의적으로 일어난 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별, 배신, 폭력, 학대, 방임 등에 의한 외상(장진이, 2010)이며, 친밀한 관계에서 배신, 무시, 욕설, 무관심, 따돌림 등과 같은 정서적 폭력을 대인 외상 경험으로 볼 수 있다(김지애, 2013). 자연재해, 사고 등과 같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빈도가 낮고 우연적인 단순 외상과는 달리 대인 간 외상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외상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성격적인 변화와 자기조절 기능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Van der Kolk et al., 2005).

Allen(2005)은 자연에 의한 외상과 우연에 의한 외상보다 고의성이 개입된 외상, 사람에 의한 외상이 더 견디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대인관계가 무너져 외상 이후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거나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Allen, 2008). 또한 대인 간 외상은 자살 시도의 증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의 발현, 대인관계 신뢰감의 손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안현의, 주혜선, 2011; DePrince & Freyd, 2002; Ford et al., 2006; Friedman et al., 2007; Luthra et al., 2009). 이와 같이, 대인 간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부정적인 변화나 증상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담장면에서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 단순 외상은 차별된 치료적 개입이 행해지고 있는 반면, 대인 간 외상은 개인적 경험으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장진이, 2010).

외상 경험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외상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최근 궁정 심리와 건강심리에 대한 외상 연구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외상 경험 이후 개인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보다는 외상 경험 이후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안지혜, 2019). 특히 외상 사건 이후의 불안 혹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변화를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고통스러운 삶의 사건을 겪은 이후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Antoni et al., 2001; Clay et al., 2009; Joseph & Linley, 2004). 개인은 심리적 충격과 상처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을 겪은 후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뿐 아니라 외상 전의 적응 단계를 능가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고 한다(Tedeschi & Calhoun, 1995, 2004). 외상 후 성장은 자기 지각과 대인관계, 인생관 영역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개인의 외상 이전의 적응 수준을 넘어서는 변형(transformation)과 질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Tedeschi & Calhoun, 1995, 2004). 외상 후 성장 이론이 등장한 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최근 외상 연구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하는지’, ‘외상 후 성장 경험이 개인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옮겨지고 있다((Lindstrom et al., 2013). 그러나 외상을 겪은 모든 사람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서적 고통으로 인해 부적응적 변화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외상 후 저하(Posttraumatic depreciation [PTD]; Cann et al., 2010)는 외상 후 성장(PTG)과 상반되는 변화를 말하며 삶의 위기에서 투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변화로 정의된다(Platte et al., 2023). 외상 후 저하의 개념은 Baker 등(2008)

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최근 Taku 등(2021)에 의해 외상 후 성장-외상 후 저하(PTG-PTD) 모델로 확장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외상 후 저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상 후 저하는 삶의 질과 삶의 의미와 부적 상관이 있고(Cann et al., 2010), 삶의 만족도, 심리적 변형과 부적 상관, 심리적 고통, 부정적인 경험과는 정적 상관을 보인다(Barrington & Shakespeare-Finch, 2013). 이는 외상 후 저하를 많이 경험할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떨어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는 한 차원의 양극단으로서 상반되는 경험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Barrington & Shakespeare-Finch, 2013). Baker 등(2008)에 의하면 외상 후 성장의 영역인 자기 지각, 대인관계 및 인생관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변화를 함께 검토한 결과 표본의 약 27%가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는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두 개의 차원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외상 후 저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Barrington과 Shakespeare-Finch(2013)의 연구에서 외상 후 저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 후 저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구분되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외상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재경험, 정서적 무감각 또는 과각성과 같은 부적응적인 증상을 말하지만, 외상 후 저하는 외상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부정적인 변화이다(Taku et al., 2021). 즉 외상 후 저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 도식

등이 완전하게 뒤바뀌는 것을 의미한다(조희준, 2022).

외상 후 성장이 미치는 긍정적 결과와 외상 후 저하의 부정적 결과를 고려할 때, 외상을 겪은 후 외상 후 성장과 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그 요인들 간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외상 후 성장-저하(PTG-PTD) 이론에 따르면 외상 경험의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경험을 드러내는 것, 즉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 개방과 반추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상을 겪은 사람의 65%에서 92%가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외상 경험을 개방한다고 한다(Ahrens et al., 2007; Fisher et al., 2003). 외상 경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심리적인 고통을 줄이고 주관적인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김교현, 1992; Bolton et al., 2003). 지지적인 타인은 새로운 도식 제공과 도식변화로 통합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을 도울 수 있다(Tedeschi & Calhoun, 2004). 따라서 외상 경험에 관한 자기 개방은 다양한 공개 방법에 관계없이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lavin - Spenny et al., 2011). 그러나 외상 경험에 대해 개방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며, 어떤 사회적 반응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Ullman(2000)은 이를 외상 경험에 대한 사회적 반응(social reactions)이라고 정의하고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자기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의 바로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이다. Taku와 Cann 등(2009)의 연구에서 외상 경험에 대해 자기 개방을 했을 때, 상대방의 긍정적 반응을 지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개인적 강점에서 더 높은 성장을 보고 하였다(Taku, Cann, et al., 2009).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은 심리적 적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외상 경험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심리적인 스트레스(Ullman & Peter-Hagene, 2014), 외상 극복에 있어서의 낮은 통제감(Frazier et al., 2005), 외상 경험에 대한 수치심을 강화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DeCou et al., 2017). 외상 사건에 관한 자신의 개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인식되면, 자기 개방에 대해 후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낮아지게 되며 이는 외상 후 저하(PTD)로 이어진다(Taku et al., 2021).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자기 개방, 외상 후 성장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한선미, 2021),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 반응과 외상 후 성장 간 정적인 상관이 확인되었다(유희선, 2019). 이와 같이 자신의 외상 경험을 개방한 후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반응은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누어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외상 후 성장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지적 과정이 중요한데,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 사건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생각하는 반추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침습적 반추는 사건에 대해 불수의적으로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으로 외상 직후 활발해진 침습적 반추는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키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의도적 반추를 불러일으킨다(Calhoun & Tedeschi, 2008). 의도적 반추는 자신이 경험한 외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자

발적인 인지적 과정으로, 외상으로부터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고 기존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사고 과정이다. 의도적 반추는 고통스러운 정서 경험을 완화시키고 긍정 정서 경험을 증가시킴으로써(임선영, 2013),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인지적 변인이다.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의 중요성 때문에,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으며, 두 변인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확장된 외상후 성장-저하 이론에 기반하여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저하와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도 있는데, Romeo 등(2022)의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은 의도적 반추와는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반면, 침습적 반추와 우울증상과는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으며, 외상 후 저하는 침습적 반추, 우울 증상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결과로 Cann 등(2010)의 연구에서는 의도적 반추만이 외상 후 성장을 긍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침습적 반추와 유사한 자동적이거나 반사적이고 음울한 반추는 모두 외상 후 저하를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상 후 저하와 의도적 반추 사이에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Taku 등(2021)의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와 자기 개방의 긍정적인 측면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였고, 침습적 반추, 자기 개방의 부정적인 측면은 외상 후 저하를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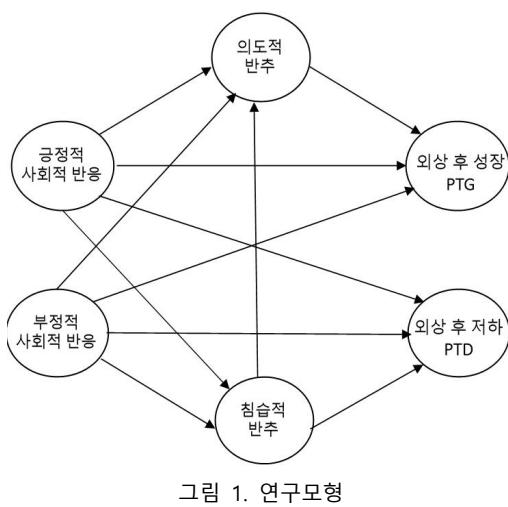
외상 후의 변화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 분야의 최근 발전된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Joseph, 2021; Joseph et al., 2012).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외상 후 저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연구자가 알기로는 현재 까지 외상 후 저하와 관련된 논문은 “외상 후 저하 척도 타당화(조희준, 2022)”뿐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외상 후 성장, 부정적 사회적 반응과 외상 후 저하,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저하의 관계는 확인하였지만,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에 미치는 다른 결과가 존재한다는 증거 및 연구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ku 등(2021)의 외상 후 성장-저하 이론에 기반하여 이 변인들의 모든 관련성을 가정하고 포화모형으로 설계하여 결과가 수렴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반응이 반추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대인 간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외상 후 성장과 저하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돋고, 국내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변인인 ‘외상 후 저하’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 부정적 사회적 반응과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저하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반응과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저하의 관계를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반 모집단을 위한 외상 스트레스 사건 목록과 미국판 PGTI 개발연구에서 사용된 사건 목록 (Tedeschi & Calhoun, 1996)들을 참고하여 송승훈(2007)이 제작한 외상 사건 12목록 중 대인 간 외상에 들어가는 8개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박태임과 정은정(202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의 8개 목록 중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사건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표시한 사건을 ‘외상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이 때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당시의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최근에 그 사건으로 인해 느껴지는 고통의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도록 하였다.

방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대인 간 외상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 위원회(IRB)의 승인(23-1-R-02)을 받은 후 리서치 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패널 대상에게 무작위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대인 간 외상 경험이 있는 성인만 응답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315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이 없어 총 315명의 데이터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

대인 간 외상경험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인 간 외상과 관련된 경험을 포괄적으로 보고자 송승훈(2007)의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 Norris(1990)의 ‘일

사회적 반응 척도(K-SRQ)

외상 경험자가 자신이 경험한 외상 사건을 타인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자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Ullman(2000)이 개발한 사회적 반응척도(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SRQ])를 심기선과 안현의(2014)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K-SR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정서적 지지, 낙인찍기, 방해하기, 통제하기, 실질적 도움, 피해자 비난, 자기중심적 반응의 7가지 요인이다. 그중 긍정적 사회적 반응은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 2가지 요인이고,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낙인찍기, 방해하기, 통제하기, 피해자 비난, 자기중심적 반응 5가지 요인이다. 심기선과 안현의(2014)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6 -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95,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97이었다.

PTGDI-X(외상 후 성장 및 저하 척도)

Taku 등(2021)이 개발한 PTGDI-X 척도는 10개국에서 번안 및 타당화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조희준(2022)이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이 척도는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를 동시에 측정하는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외상 이후 나타나는 특정한 변화를 경험한 정도를 6점 Likert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는 대인관계의 깊이, 새로운 가능성의 변화, 자기 지각의 변화, 영적 및 실존적 변화, 삶에 대한 감사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Taku 등(2021)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고, 조희준(2022)의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이 .92, 외상 후 저하가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이 .97, 외상 후 저하가 .93이었다.

사건 관련 반추 척도(ERRI)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Cann 등(2011)이 개발하고 안현의 등(2013)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사건 관련 반추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외상과 관련 있는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측정하며 각각 10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반추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현의 등(2013)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침습적 반추는 .96, 의도적 반추는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는 .96, 의도적 반추는 .93이었다.

분석 방법

연구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21.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에 대

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 통계 분석을 위해 긍정적 사회적 반응, 부정적 사회적 반응, 의도적 반추, 침습적 반추,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저하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추정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 22.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경로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Taylor 등(2008)이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각각의 매개변수와 관련된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는 95명(30.2%), 여자는 220명(69.8%)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 연령은 만 30~39세가 97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만 40~49세가 74명(23.5%), 만 20~29세가 64명(20.3%), 만 50~59세가 58명(18.4%), 만 60~69세가 22명(7%) 순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약 40.6세($SD=11.56$)였다. 종교는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16명(36.8%), '없다'라고 응답한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15)

구분	분류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자	95	30.2
	여자	220	69.8
연령	만20-29세	64	20.3
	만30-39세	97	30.8
	만40-49세	74	23.5
	만50-59세	58	18.4
	만60-69세	22	7
종교	유	116	36.8
	무	199	63.2
직업	직장인	214	67.9
	사업	19	6
	대학/대학원생	15	4.8
	주부	37	11.7
지각된 경제수준	취업준비생	5	1.6
	무직	17	5.4
	기타	8	2.5
	매우 좋지 않다	12	3.8
	좋지 않은 편이다	77	24.4
지각된 건강수준	보통이다	172	54.6
	좋은 편이다	50	15.9
	매우 좋다	4	1.3
	매우 좋지 않다	6	1.9
	좋지 않은 편이다	59	18.7
	보통이다	150	47.6
	좋은 편이다	91	28.9
	매우 좋다	9	2.9
	합계	315	100

대상자가 199명(63.2%)이었고, 직종은 직장인 이 214명(67.9%)으로 가장 많았다. 지각된 경제수준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수가 172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지각된 건강수준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수가 150명(47.6%)으로 가장 많았다.

외상 사건의 유형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가장 고통스러운 대인 간 외상 사건 유형은 표 2와 같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30.2%)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파탄(21%), 배신의 충격(18.4%),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11.1%), 관계에서 적응의 어려움(10.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긍정적 사회적 반응, 부정적 사회적 반응, 의도적 반추, 침습적 반추, 외상 후 성장(PTG), 외상 후 저하(PTD)의 기술통계치와 상관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 사회적 반응은 의도적 반추($r=.145, p<.05$), 외상 후 성장($r=.44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외상 후 저하($r=-.174,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의도적 반추($r=.256, p<.001$), 침습적 반추($r=.160, p<.01$), 외상 후 성장($r=.297, p<.001$), 외상 후 저하($r=.592,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었고, 의도적 반추는 침습적 반추($r=.292, p<.001$), 외상 후 성장($r=.517, p<.001$), 외상 후 저하($r=.149, p<.01$)와 통계적으로 유

표 2. 가장 고통스러웠던 외상 사건 유형 ($N=315$)

NO	사건종류	빈도	퍼센트
1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35	11.1
2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95	30.2
3	대인관계 파탄 (이별, 실연, 절교 등)	66	21
4	관계에서 적응의 어려움 (학교, 사회, 집단에서 소외, 따돌림 등)	33	10.5
5	이혼 및 별거 (본인 및 부모)	16	5.1
6	배신의 충격 (거짓말, 외도, 속임, 사기 등)	58	18.4
7	어린 시절의 학대	8	2.5
8	지인으로부터의 성추행 및 성폭행	4	1.3

표 3. 각 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N=315$)

변수	1	2	3	4	5	6
1. 긍정적 사회적 반응						
2. 부정적 사회적 반응	-0.053					
3. 의도적 반추	.145*	.256***				
4. 침습적 반추	-0.019	.160**	.292***			
5. 외상 후 성장	.443***	.297***	.517***	-0.009		
6. 외상 후 저하	-.174**	.592***	.149**	.384***	0.039	1
평균	3.544	1.961	2.366	2.472	3.385	2.574
표준편차	0.692	0.743	0.707	0.808	1.023	1.036
왜도	-0.475	0.999	0.035	0.071	0.011	0.623
첨도	0.470	0.783	-0.438	-0.643	-0.582	-0.205

주. * $p<.05$, ** $p<.01$, *** $p<.001$

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었으며 침습적 반추는 외상 후 저하($r=.384$,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변인들의 왜도 값 범위는 -0.475에서 0.999, 첨도 -0.643에서 0.783으로 Curran 외(1996)가 제안한 정규분포의 기준(절댓값 기준 왜도 <2, 첨도

<7)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검증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묶음 (item parceling)을 실시하고 측정 변인을 새로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잠재 변인인 긍정적 사회적 반응, 의도적 반추, 침습적 반추를 각각 3개의 문항묶음으로 만들고, 부정적 사회적 반응,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저하를 각각 4개의 문항묶음으로 만들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때 각 문항의 요인계수를 확인하여 각 문항 별로 순위를 매겨 가장 큰 요인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적은 요인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짹으로 묶어 순서대로 각 묶음에 연속적으로 할당하였다(이해서, 신효정, 2021).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291.475(df=174, p<.000)$, TLI=.982, CFI=.985, RMSEA=.046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을 수용하기 위한 기준을 충

표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C.R.
		B	β	S.E.	
긍정적 사회적 반응	긍정반응1	1.042	0.935	0.035	29.74***
	긍정반응2	1.15	0.948	0.037	30.895***
	긍정반응3	1	0.922		
의도적 반추	의도적반추1	0.971	0.907	0.037	26.222***
	의도적반추2	0.903	0.888	0.036	24.923***
	의도적반추3	1	0.93		
외상 후 성장(PTG)	외상후성장1	0.933	0.938	0.029	31.898***
	외상후성장2	1.115	0.95	0.033	33.392***
	외상후성장3	0.946	0.931	0.031	30.961***
	외상후성장4	1	0.93		
부정적 사회적 반응	부정반응1	0.982	0.943	0.028	35.56***
	부정반응2	0.902	0.937	0.026	34.544***
	부정반응3	1.037	0.96	0.027	38.88***
	부정반응4	1	0.949		
침습적 반추	침습적반추1	0.995	0.936	0.033	30.017***
	침습적반추2	1.053	0.979	0.031	34.365***
	침습적반추3	1	0.916		
외상 후 저하(PTD)	외상후저하1	1.192	0.951	0.054	21.875***
	외상후저하2	0.962	0.846	0.053	18.27***
	외상후저하3	1.14	0.89	0.058	19.778***
	외상후저하4	1	0.821		

주. *** $p<.001$

족시켰다. 표 4에 제시된 요인부하량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표준화 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82에서 .98의 크기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측정모형을 사용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χ^2

측정모형이 수용 가능하여 다음으로 구조모형 검증을 시행하였다. 구조모형은 잠재변인 간 관계를 설정한 모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해당되며 분석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형을 수용하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hi^2 = 312.479$ [$df = 177$, $p < .000$], TLI = .979, CFI = .983, RMSEA = .049). 연구모형의 잠재변인들 간 경로 계수를 살펴보면,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의도적 반추($\beta = .176$, $p < .01$)와 외상 후 성장($\beta = .420$, $p < .001$)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외상 후 저하($\beta = -.144$, $p < .01$)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침습적

반추($\beta = -.028$, $p = .624$)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에서 침습적 반추($\beta = .158$, $p < .01$)로 가는 경로와 외상 후 성장($\beta = .214$, $p < .001$)과 외상 후 저하($\beta = .558$, $p < .001$), 의도적 반추($\beta = .237$, $p < .001$)로 가는 경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의도적 반추에서 외상 후 성장($\beta = .420$, $p < .001$)으로 가는 경로와 침습적 반추에서 외상 후 저하($\beta = .296$, $p < .001$)와 의도적 반추($\beta = .261$, $p < .001$)로 가는 경로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연구모형 분석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경로, 즉 긍정적 사회적 반응에서 침습적 반추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수정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정했으며 분석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보면, 두 모형 모두 GFI와 CFI가 .90 이상이고, RMSEA도 .049로 수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에 비해 최종 구조모형의 χ^2 가 0.238이 증가하여,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유의확률 .05 수준의 분포 임계치인 3.84보다 작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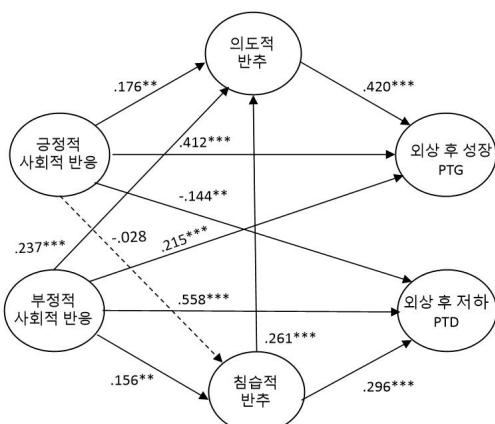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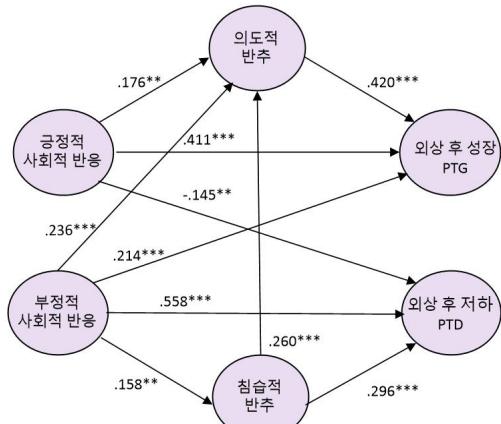


그림 3. 최종 구조모형

표 5. 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χ^2/df	GFI	CFI	TLI	RMSEA
연구모형	312.479	177	1.765	.913	.983	.979	.049
구조모형(최종)	312.717	178	1.757	.913	.983	.980	.049

보다 간명한 모형인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된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최종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형을 수용하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chi^2=312.717 [df=178, p<.000]$, TLI=.980, CFI=.983, RMSEA=.049),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연구모형의 잠재변인들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의도적 반추($\beta=.176, p<.01$)와 외상 후 성장($\beta=.411, p<.001$)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외상 후 저하($\beta=-.145, p<.01$)에 이르는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로 나타났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에서 침습적 반추($\beta=.158, p<.01$)로 가는 경로와 외상 후 성장($\beta=.214, p<.001$)과 외상 후 저하($\beta=.558, p<.001$), 의도적 반추($\beta=.236, p<.001$)로 가는 경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의도적 반추에서 외상 후 성장($\beta=.420, p<.001$)으로 가는 경로와 침습적 반추에서 외상 후 저하($\beta=.296, p<.001$)와 의도적 반추($\beta=.260, p<.001$)로 가는 경로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부정적

표 6.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B	β		
긍정적사회적반응 → 의도적반추	0.167	0.176	0.053	3.177 ^{**}
긍정적사회적반응 → 외상후성장	0.534	0.411	0.059	8.984 ^{***}
긍정적사회적반응 → 외상후저하	-0.217	-0.145	0.066	-3.266 ^{**}
부정적사회적반응 → 침습적반추	0.168	0.158	0.061	2.753 ^{**}
부정적사회적반응 → 외상후성장	0.276	0.214	0.059	4.688 ^{***}
부정적사회적반응 → 외상후저하	0.829	0.558	0.069	12.079 ^{***}
부정적사회적반응 → 의도적반추	0.223	0.236	0.053	4.245 ^{***}
의도적반추 → 외상후성장	0.573	0.420	0.066	8.667 ^{***}
침습적반추 → 외상후저하	0.413	0.296	0.063	6.561 ^{***}
침습적반추 → 의도적반추	0.231	0.260	0.050	4.663 ^{***}

주. ^{**} $p<.01$, ^{***} $p<.001$

표 7. 효과분해 결과정리표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긍정적 사회적 반응 → 외상 후 성장	.485**	.411**	.074**	.020 ~ .139
긍정적 사회적 반응 → 외상 후 저하	-.145**	-.145**	-	-
부정적 사회적 반응 → 외상 후 성장	.331**	.214**	.117**	.068 ~ .166
부정적 사회적 반응 → 외상 후 저하	.605**	.558**	.047**	.015 ~ .079

주. ** $p<.01$

사회적 반응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인 다중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간접효과와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유의성을 확인하는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 분석 방식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 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Taylor 등(2008)이 제안한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 및 직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의 총 효과는 $\beta=.485(p<.01)$, 직접효과는 $\beta=.411(p<.01)$, 간접효과는 $\beta=.074(p<.01)$ 로 정적

방향으로 유의하였고, 외상 후 저하로 가는 경로의 총 효과와 직접효과는 $\beta=-.145(p<.01)$ 로 부적방향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는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의 총 효과는 $\beta=.331(p<.01)$, 직접효과는 $\beta=.214(p<.01)$, 간접효과는 $\beta=.117(p<.01)$ 로 정적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외상 후 저하로 가는 경로에서 총 효과는 $\beta=.605(p<.01)$, 직접효과는 $\beta=.558(p<.01)$, 간접효과는 $\beta=.047(p<.01)$ 로 정적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부트스트랩 기법을 통해서는 전체에 대한 간접효과만 확인할 수 있어 각각의 매개변수와 관련된 개별 간접효과는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값을 분석해

표 8. 팬텀변수를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긍정적 사회적 반응 →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096**	.041	.027 ~ .188
부정적 사회적 반응 → 침습적 반추 → 외상 후 저하	.070**	.025	.021 ~ .119
부정적 사회적 반응 →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128**	.032	.069 ~ .198
부정적 사회적 반응 →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027**	.010	.008 ~ .051

주. ** $p<.01$

서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사회적 반응에서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향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B=.096(p<.01)$ 이었으며, 이 값의 95% 신뢰구간은 .027 ~ .188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사회적 반응에서 침습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저하로 향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B=.070(p<.01)$ 으로 95% 신뢰구간은 .021 ~ .11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정적 사회적 반응에서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향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B=.128(p<.01)$ 이었으며, 95% 신뢰구간은 .069 ~ .198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부정적 사회적 반응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향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B=.027(p<.01)$ 로 95% 신뢰구간은 .008 ~ .051로 나타났다. 이 네 가지 경로에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팬텀변수를 사용하여 개별경로 간의 4개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때 의도적 반추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긍정적 사회적 반응은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저하에 영향을 미칠 때 침습적 반추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침습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저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때 의도적 반추의 간접효과와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때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의도

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마지막으로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외상 후 성장-저하 이론에 근거하여 대인 간 외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외상 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반추가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저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외상 경험 개방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외상 경험자의 자기 경험에 대한 평가와 반응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Ullman & Filipas, 2001),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적을수록 새로운 인지 체계를 만들어 가는 의도적 반추가 촉진될 수 있고(이하나, 2016), 사회적 지지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는 것은 외상 후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심기선, 안현의,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누고,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의도적 반추와 침습적 반추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직접효과는 정적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인 간 외상 경험자가 외상 경험 개방 후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사회적 반응을 받으면 외상 후 성장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Freedle과 Oliveira(2022)의

유산 경험 공개 후 사회적 반응과 반추, 외상 후 성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저하로 가는 직접효과도 정적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외상 후 성장-저하 이론적 모델 검증에서 샘플의 특성과 상관없이 부정적 공개는 모두 외상 후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난 Taku 등(202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개인이 경험한 외상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으면 그것이 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Ullman(2010)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 즉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이 외상 경험을 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로 외상 후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변화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저하를 보호하는 효과보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더 크며,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보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저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Dworkin 등(2019)의 연구에서 자기 개방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을 지각하는 것은 정신병리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없었으며, 긍정적인 반응의 잠재적 이득이 부정적인 반응의 잠재적인 위험보다 작다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둘째,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른다는

선행연구(Freedle & Oliveira, 202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긍정적 사회적 반응에는 구체적으로 외상 경험자의 말을 경청하고 믿어주며 위로해주는 ‘정서적 지지’와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는 ‘실질적 도움’이 포함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제공되었을 때 외상 경험자는 심리적 위안을 느끼고 고통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자기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상 경험을 개방한 대상으로부터 사회적인 지지를 받게 되면 위안을 얻고, 나아가 의도적 반추 등의 여러 인지적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전유진, 배정규, 2013; 정민선, 2014). 윤소희와 장재홍(2022)의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외상 사건을 능동적으로 재평가하는 의도적 반추가 높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같이 대인 간 외상 경험자가 외상을 개방했을 때 타인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외상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적 반추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외상 후 성장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침습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경험 개방 후 타인의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은 외상 후 저하의 예측 변인 중 하나이다(Taku et al., 2021). 또한 침습적 반추는 외상 후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Cann et al., 2010),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외상 개방 후 ‘낙인찍기’, ‘통제하기’, ‘피해자 비난’ 등과 같은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외상 경험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강한 감정과 함께 침습적 반추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외상 후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변화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 사회적 반응도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외상을 경험한 후 자기 개방의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Tedeschi와 Calhoun(1996, 2004)은 외상을 경험한 후 외상 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개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Taku 등(2009)의 외상 경험이 있는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 개방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외상 후 성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Taku, Tedeschi, et al., 2009).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나 부정적 사회적 반응의 종류에 관계없이 외상에 대한 자기 개방이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계와는 다르지만 자기 개방이 침습적 반추를 의도적 반추로 바꾸도록 돋는다는 Tedeschi 등(2018)의 연구 결과는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경험하더라도 자기 개방을 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지각하는 것이 자기 비난과 회피적 대처 사용을 증가시키고(Hassija & Gray, 2012), 외상 경험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심리적인 스트레스(Ullman & Peter-Hagene, 2014), 외상 극복에 있어서의 낮은 통제감(Frazier et al., 2005), 외상 경험에 대한 수치심을 강화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상반된

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Taku와 Cann 등(2009)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사회적 반응 모두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단지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Taku, Cann, et al.,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상관관계와 구조경로 계수를 보면 의도적 반추의 경우 부정적 사회적 반응의 영향력이 긍정적 사회적 반응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최근 선행연구에서도 부정적 반응과 의도적 반추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김연주, 박기환, 2024), 연구자들은 대인 외상 경험자가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인지적 과정에서 자기 개방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상 후 성장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반응을 경험하였는지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방의 정도나 그 대상 등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개방의 특성들이 사회문화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도적 반추와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김지애, 이동귀, 2012).

특히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대인 간 외상이라는 특정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 개방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에 이르는 복잡한 경로를 하나의 모형에서 검증하고자 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긍정적, 부정적 사회적 반응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만을 보거나 부정적 혹은 긍정적 사회적 반응 중 하나가 반추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들이다.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 상관이 존

재하고,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독립적이며,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도 독립적이므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외상 사건의 유형에 따라 외상 후 성장 정도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수림, 2013). 대인 간 외상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반응을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따돌림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침습적 반추로 이어질 때는 외상 후 성장에 부정적이지만, 의도적 반추로 이어질 때는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Ravelo et al., 2024)이라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즉 부정적 사회적 반응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더라도 의도적 반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외상 후 성장을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상 후 자기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연구들은 강간 피해자, 알코올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 유산을 경험한 여성들 등 심각하며 동질적인 외상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도 긍정적,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구체적인 외상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실질적 도움은 전형적인 강간 피해자들이 많이 보고하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며, 알코올과 관련된 폭력에서는 대부분의 부정적 사회적 반응들이 흔하게 나타나며(Ullman, 1999), 더 심각한 성적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들일수록 더 많은 부정적 반응을 경험한다는 결과들이 존재한다 (Siegel et al., 1989; Ullman & Siegel, 1995). 본 연구가 대인 간 외상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외상은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사망, 대인관계 파탄,

관계에서 적응의 어려움, 이혼 및 별거, 배신의 충격, 학대, 성추행(성폭행) 등이 포함된다. 이중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가장 고통스러운 대인 간 외상 사건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30.2%)이었고,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파탄(21%), 배신의 충격(1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심각한 대인 간 외상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그에 비해 심각도가 다소 낮은 대인 간 외상 사건으로 연구 참여자가 자기 개방을 하였을 때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많이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사회적 반응의 하위 종 자기중심적 반응은 여러 가지가 다소 혼재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기 어렵우며 (Ullman, 2000), 방해하기와 자기중심적 반응을 외상 경험자들이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Campbell et al., 1999; Ullman & Filipas, 2001)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정적 사회적 반응 중 일부에 대해서는 외상 경험자들이 부정적 반응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에 관한 자신의 개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인식되면 자기 개방을 후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낮아져 이는 외상 후 저하로 이어지며, 긍정적인 개방 경험은 모두 외상 후 성장으로, 부정적인 개방 경험은 한 개국만 제외하고 모두 외상 후 저하로 이어졌다(Taku et al., 2021). 이에 대해 Taku 등(2021)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공개에 대해 깊게 생각하여 더 나빠지거나 혼란스러워지면 외상

후 저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대인 간 외상 경험자가 외상 경험을 개방한 후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경험하였을 때 침습적 반추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외상 사건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봄으로써 인지적으로 재해석하여 의도적 반추를 촉진하게 되면 외상 후 성장에 이를 수 있다. 즉 타인의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이나 자신의 개방이 다른 사람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외상 후 저하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많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르려면 의도적 반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긍정적 사회적 반응보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의도적 반추와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경로계수에서도 부정적 사회적 반응에서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계수가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명확히 밝힌 선행연구는 거의 없지만 이와 유사하게 성폭력 피해 경험자를 대상으로 자기 개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이하나(2016)의 연구에서 부정적 사회적 반응 중 ‘방해하기’와 ‘피해자 비난’이 의도적 반추와 낮지만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보다 타인의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이 외상 경험자로 하여금 강한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외상 경험자는 외상에 관해 다시 한 번 인지적, 감정적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의도적 반추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는

서로 다른 심리 상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Cann 등(2010)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Baker 등(2008)의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는 서로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두 개의 차원이라는 연구 결과를 재확인 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예측 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은 두 변수가 하나의 차원의 양극 단이 아니며 따라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외상 경험 개방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 둘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인 간 외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외상 경험 개방 후 사회적 반응과 반추,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의 관계를 살펴본 첫 번째 연구로서 몇 가지 점에서 의의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상 후 성장-저하 이론을 적용하여 자기 개방의 사회적 반응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외상을 경험한 후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들이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외상 후의 변화가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질 수 있다(Tedeschi et al., 2018)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겪는 부정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개인이 외상 후 성장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외상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위기에 대해 타인에게 공개하는 정도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 공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Tedeschi와 Calhoun(2004)에 의해 제기 되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사회적 반응보다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어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조사한 것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회적 반응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고 반추를 매개로 개인이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영향을 각각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셋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반응과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저하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 이론의 이해를 확장하였다. 즉 외상 경험자가 외상 경험을 개방한 후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반응에 따라 반추를 경험하고 이는 외상 후 성장 혹은 외상 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외상 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치료의 구체적 개입방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외상 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Taku와 Cann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외상 개방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는 사람보다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ku, Cann, et al., 2009). 이때 타인의 반응양상과 그 영향은 매우 중요한데 외상 경험자가 상담 장면에서 외상 경험에 대해 개방할 때 상담자는 ‘정서적 지지’ 혹은 ‘실질적 도움’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외상 사건에 대한 생각을 보다 정교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외상 경험자가 타인에게 외상 경험을 개방했을 때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받을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항상 외상 후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침습적 반추로 이어지더라도 충분한 인지적 처리과정을 거쳐 의도적 반추로 발전하게 되면 외상 후 성장으로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이러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내담자가 외상 경험을 공개하였을 때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받더라도 내담자의 부정적인 반추가 의도적이고 성장지향적인 반추로 바뀔 수 있도록 효과적인 치료전략을 적용하여 내담자가 외상 후 성장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상 후 저하와 외상 후 스트레스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외상 경험자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보고할 때 이 두 개념을 구별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상 경험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외상 재경험 또는 과각성과 같은 부정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나타나는 근원적인 부정적 변화인지를 살펴보고 상담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저하는 부적 상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모두 외상 후 저하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Allbaugh 등(2016)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외상 후 저하와 의도적 반추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Cann 등(2010)과 Romeo 등(2022)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침습적이든 의도적이든 지속적인 반추는 외상 후 저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난 Platte 등(2023)의 연구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의도적 반추와 상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제한적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어떤 기제를 통해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이것이 외상 경험의 종류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외상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사회적 반응에 선행하는 자기 개방의 정도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가 서로 독립된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고,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외상 후 저하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개념에 대한 추가적 타당화를 위한 반복 연구들이 필요하다.셋째,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 사회적 반응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은 의도적 반추에 이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의 경험의 수준에 따른 차별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에 따른 반추와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저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부정적 사회적 반응의 평균값이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평균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외상에 대한 자기 개방 후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거나 약하게 경험한 참여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도 동시에 긍정적 반응을 경험하였을 때,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반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반응양상과 그 영향은 외상 경험자와의 관계나 반응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이하나, 2016). 같은 사회적 반응이라 할지라도 공개하는 대상에 따라 외상 경험자가 그 반응을 인식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타인의 의도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 반응의 영향력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상 경험자의 ‘행동에 대한 비난하기’가 친구나 상담자에 의해 제공되었을 때, 그 반응의 목적이 추후 외상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상 경험자의 행동이 잘못된 점을 알려주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Ahrens et al., 2009).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을 공개하는 대상을 구분하여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교현 (1992). 자기노출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11(1), 81-107.
- 김연주, 박기환 (2024). 핵심신념붕괴,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간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사회적 반응의 조절된-조절된 매개 효과: 대인 외상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10(2), 281-312.
- 김지애 (2013).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 촉진

- 요인에 관한 개념도 연구: 정서적 폭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애, 이동귀 (2012). 외상 후 성장 집단의 판별요인 연구. *상담학연구*, 13(4), 1845-1859.
- 박태임, 정은정 (2023).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사건중심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외상 후 인지와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8), 480-492.
-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척도 (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기선, 안현의 (2014). 한국판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K-SRQ)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271-296.
- 안지혜 (2019). 외상경험자의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 주혜선 (2011). 단순 및 복합 외상 유형에 따른 PTSD의 증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869-887.
-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K-ERRI)의 타당화. *인지행동치료* 13(1), 149-172.
- 유희선 (2019). 고등학생의 외상 경험 개방 후 사회적 반응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 김서현 (2012). 대학생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0(2), 5-31.
- 윤소희, 장재홍 (2022).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와 부정 정서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4), 1157-1176.
-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최수정, 김시형 (2017). 성격 5요인, 외상 후 인지, 사건관련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외상 후 성장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2), 241-270.
- 이수립 (2013). 외상 유형이 외상 후 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319-341.
- 이하나 (2016).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자기 개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서, 신효정 (2021).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257-265.
- 임선영 (2013). 외상적 관계상실로부터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745-772.
- 장진이 (2010). 반복적 대인간 외상경험자의 자기체계 손상과 심리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유진, 배정규 (2013).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4(2), 215-228.
- 정민선 (2014). 대학생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415-430.
- 조희준 (2022). 외상 후 저하 척도의 타당화.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선미 (2021).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의 자기개방과 사회적 반응경험, 외상 죄책감,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ffifi, T., Enns, M., Cow, B., Asmundson, G., Stein, M., & Sareen, J. (2008).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of psychiatric disorders and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associated with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5), 946-952.

Ahrens, C. A., Campbell, R., Ternier-Thames, K., Wasco, S., & Sefl, T. (2007). Deciding whom to tell: Expectations and outcomes of sexual assault survivors' first disclosur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1), 38-49.

Ahrens, C. E., Cabral, G., & Abeling, S. (2009). Healing or hurtful: Sexual assault survivors' interpretations of social reactions from support provid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1), 81-94.

Allbaugh, L. J., Wright, M. O. D., & Folger, S. F. (2016). The role of repetitive thought in determining posttraumatic growth and distress following interpersonal trauma. *Anxiety, Stress, & Coping*, 29(1), 21-37.

Allen, J. G.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2nd Ed.).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Allen, J. G. (2008).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American Psychiatric Publishers.

Antoni, M. H., Lehman, J. M., Kilbourn, K. M., Boyers, A. E., Culver, J. L., Alferi, S. M., & Carver, C. S. (2001). Cognitive-behavioral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 decreases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enhances benefit finding among women under treatment for early-stage breast cancer. *Health Psychology*, 20(1), 20-32.

Baker, J. M., Kelly, C.,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R. G. (2008). An examination of posttraumatic growth and posttraumatic depreciation: Two exploratory studie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3(5), 450-465.

Barrington, A., & Shakespeare-Finch, J. (2013). Posttraumatic growth and posttraumatic depreciation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Loss and Traum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tress & Coping*, 18(5), 429-443.

Bolton, E. E., Glenn, D. M., Orsillo, S., Roemer, L., & Litz, B. T.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eacekeepers deployed to Somali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6(3), 203-210.

Borges, G., Benjet, C., Medina-Mora, M. E., Orozco, R., Molnar, B. E., & Nock, M. K., (2008), Traumatic events and suicide-related outcomes among Mexico City adolescent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6), 654-666.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8). The paradox of struggling with trauma: Guidelines for practice and directions for research. In S. Joseph & P. A. Linley (Eds.), *Trauma, recovery, and growth: Posi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sttraumatic stress* (pp. 325-337). John Wiley & Sons.

Campbell, R., Sefl, T., Barnes, H. E., Ahrens, C.

- E., Wasco, S. M., & Zaragoza-Diesfeld, Y. (1999). Community services for rape survivors: Enhancing psychological well-being or increasing traum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6), 847.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 Solomon, D. T. (2010). Posttraumatic growth and depreciation as independent experiences and predictors of well-being.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3), 151-166.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An International Journal*, 24(2), 137-156.
- Clay, R., Knibbs, J., & Joseph, S. (2009). Measurement of posttraumatic growth in young people: A review.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4(3), 411-422.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Cou, C. R., Cole, T. T., Lynch, S. M., Wong, M. M., & Matthews, K. C. (2017). Assault-related shame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negative social reactions to disclosure of sexual assault and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9(2), 166-172.
- DePrince, A. P., & Freyd, J. J. (2002). The intersection of gender and betrayal in trauma. In R. Kimerling, P. Ouimette, & J. Wolfe (Eds.), *Gender and PTSD* (pp. 98-113). The Guilford Press.
- Dworkin, E. R., Brill, C. D., & Ullman, S. E. (2019). Social reactions to disclosure of interpersonal violence and psychopatholog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72, 101750.
- First, M. B. (2024). *DSM-5-TR® Handbook of Differential diagnosis*. American Psychiatric Pub.
- Fisher, B. S., Daigle, L. E., Cullen, F. T., & Turner, M. G. (2003). Reporting sexual victimization to the police and others: Results from a national-level study of college wome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0(1), 6-38.
- Ford, J. D., Stockton, P., Kaltman, S., & Green, B. L. (2006).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symptoms are associated with type and severity of interpersonal trauma exposure in a sample of healthy young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11), 1399-1416.
- Frazier, P. A., Mortensen, H., & Steward, J. (2005). Coping strategie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 among perceived control and distress in sexual assault surviv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267.
- Freedle, A., & Oliveira, E.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losure, social reactions,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miscarriage. *Traumatology*, 28(4), 445-457.
- Friedman, M. J., Keane, T. M., & Resick, P. A. (2007). *Handbook of PTSD: Science and practice*. Guilford Press.
- Golding, J. M., Siege, J. M., Sorenson, S. B., Burnam, M. A., & Stein, J. A. (1989). Social support sources following sexual assault.

-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1), 92-107.
- Hassija, C. M., & Gray, M. J. (2012). Negative social reactions to assault disclosure as a mediator between self-blam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mong survivors of interpersonal assaul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7), 3425-3441.
- Herman, J. L. (1992). *Trauma and recovery*. Basic Books.
- Herman, J. L. (2015).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Hachette uK.
- Joseph, S. (2021). Posttraumatic growth as a process and an outcome: Vexing problems and paradoxe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stic psychology. *The Humanistic Psychologist*, 49(2), 219-239.
- Joseph, S., & Linley, P. A. (2008). *Trauma, recovery, and growth: Posi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sttraumatic stress*. John Wiley & Sons.
- Joseph, S., Murphy, D., & Regel, S. (2012). An affective-cognitive processing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9(4), 316-325.
- Lindstrom, C. M., Cann, A., Calhoun, L. G., & Tedeschi, R. G. (2013). The relationship of core belief challenge, rumination, disclosure, and sociocultural elements to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5(1), 50.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 Luthra, R., Abramovitz, R., Greenberg, R., Schoor, A., Newcorn, J., Schmeidler, J., & Chemtob, C. M. (2009).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trauma exposur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urba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11), 1919-1927.
- Norris, F. H. (1990). Screening for traumatic stress: A scale for use in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0(20), 1740-1788.
- Ozer, E. J., Best, S., Lipsey, T. L., & Weiss, D. S. (2003).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ymptoms in adult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9(1), 52-73.
- Platte, S., Wiesmann, U., Tedeschi, R. G., Taku, K., & Kehl, D. (2023). A short form of the posttraumatic growth and posttraumatic depreciation inventory-expanded (PTGDI-X-SF) among German adult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5(5), 838-845.
- Ravelo, Y., Marrero, H., de la Rosa, O. M. A., & Gonzalez-Mendez, R. (2024). Affect and post-traumatic growth in previously bullied students: Intrusive and deliberate rumination as mediat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1, 112822.
- Romeo, A., Castelli, L., Zara, G., & Di Tella, M. (2022). Posttraumatic growth and posttraumatic depreciation: associations with core beliefs and rumination.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9(23), 15938.
- Romito, P., & Grassi, M. (2007). Does violence affect one gender more than the other? The

- mental health impact of violence amo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ocial Science & Medicine*, 65(6), 1222-1234.
- Siegel, J. M., Sorenson, S. B., Golding, J. M., Burnam, M. A., & Stein, J. A. (1989). Resistance to sexual assault: Who resists and what happe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9(1), 27-31.
- Slavin Spenny, O. M., Cohen, J. L., Oberleitner, L. M., & Lumley, M. A. (2011). The effects of different methods of emotional disclosure: Differentiating post traumatic growth from stress symptom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7(10), 993-1007.
- Taku, K., Cann, A.,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8). The factor structure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A comparison of five models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2), 158-164.
- Taku, K., Cann, A., Richard G.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9). Intrusive versus deliberate rumination in posttraumatic growth across US and Japanese samples. *Anxiety, Stress & Coping*, 22(2) 129-136.
- Taku, K., Tedeschi, R. G., Cann, A., & Calhoun, L. G. (2009). The culture of disclosure: Effects of perceived reactions to disclosure on posttraumatic growth and distress in Japa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8(10), 1226-1243.
- Taku, K., Tedeschi, R. G., Shakespeare-Finch, J., Krosch, D., David, G., Kehl, D., Grunwald, S., Romeo, A., Tella, M., Kamibeppu, K., Soejima, T., Hiraki, K., Volgin, R., Dhakal, S., Zieba, M., Ramos, C., Nunes, R., Leal, I., Gouveia, P., ... & Calhoun, L. G. (2021). Posttraumatic growth (PTG) and posttraumatic depreciation (PTD) across ten countries: Global validation of the PTG-PTD theoretical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9, 110222.
- Taylor, A. B., MacKinnon, D. P., & Tein, J. Y. (2008). Tests of the three-path mediated effect.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2), 241-269.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edeschi, R. G., Shakespeare-Finch, J., & Taku, K. (2018). *Posttraumatic growth: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Routledge.
- Ullman, S. E. (1999). Social support and recovery from sexual assault: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3), 343-358.
- Ullman, S. E. (200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A Measure of reactions to sexual assault victi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3), 257-271.
- Ullman, S. E. (2010). *Talking about sexual assault: Society's response to survivor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Ullman, S. E., & Filipas, H. H. (2001). Predictors of ptsd symptom severity and social reactions in sexual assault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2), 369-389.
- Ullman, S. E., & Siegel, J. M. (1995). Sexual assault, social reactions, and physical health. *Women's health* 1(4), 289-308.
- Ullman, S. E., & Peter Hagene, L. (2014). Social reactions to sexual assault disclosure, coping, perceived control, and PTSD symptoms in sexual assault victim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2(4), 495-508.
- Van der Kolk, B. A., Roth, S., Pelcovitz, D., Sunday, S., & Spinazzola, J. (2005). Disorders of extreme stress: The empirical foundation of a complex adaptation to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18(5), 389-399.

원고 접수일 : 2024. 10. 22

수정원고접수일 : 2025. 01. 03

게재 결정일 : 2025. 05. 19

The effects of social reactions and rumination on posttraumatic growth (PTG) and posttraumatic depreciation (PTD) following disclosure of traumatic experiences in individuals with interpersonal trauma

Mee Yeon Yoo Min Hee Kim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Master's Graduate Professor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social reactions and rumination on posttraumatic growth (PTG) and posttraumatic depreciation (PTD) following disclosure of traumatic experiences in individuals with interpersonal trauma.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315 adults with interpersonal traum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We found a mediating effect of deliberate ru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social reactions and PTG, a mediating effect of intrusive ru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social reactions and PTD, a mediating effect of deliberate ru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social reactions and PTG, and a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social reactions and PTG.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 the importance of social reactions and rumination in intervention strategies to promote PTG in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interpersonal trauma.

Key words : Interpersonal trauma, Social reactions, Rumination, Posttraumatic growth, Posttraumatic depreciation